

# “어려지는 비밀, 세포 속에 다 있네” 바이오 입고 더 똑똑해진 K-뷰티

이미인-라비오, 고기능성 소재 연구 미토콘드리아·세포에너지 ‘강점’ HLB펩 더마사이언스브랜드 ‘랩센’ 커큐민 펩타이드 원료 제품 선택 리필드, 모발성장 촉진 성분 개발 세르본, 화장품 성분 세포 내 침투

뷰티와 바이오의 결합으로 K뷰티 산업의 기술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다. 스킨케어 연구개발이 ‘세포’ 단위에서 이뤄지면서 항노화 개념 역시 ‘통제비티(피부 장수)’로 확장된다.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이나 슬로우에이징에서 피부 세포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주문자위탁생산(OEM) 및 제조개발생산(ODM) 전문 기업 이미인은 지난달 31일 바이오 기업 라비오와 ‘세포 에너지 기반 항노화 화장품 소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1년간 공동 연구에서 고기능성 소재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제조기업과 소재기업이 협업해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수행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미인은 라비오와 함께 도출한 소재의 제형 안정화, 화장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라비오는 세계 최초 발효효일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원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 난용성 물질 가용화 및 캡슐화 기술, 효능 검증에 위한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천연 유래 소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 및 세포 에너지 관련 연구에서 강점을 갖췄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세포 에너지 감소 등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인 측은 “이번 협약은 차세대 항노화 소재를 발굴하고 과학 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펩타이드 원료 전문 기업 HLB펩은 기존 HLB그룹 내 뷰티 브랜드 미인실록과 협력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더마사이언스 브랜드 랩센을 추가 공개했다. 원료를 외부에서 공급하는 일반적인 뷰티 브랜드와 달리 독자 펩타이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료 내재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HLB는 핵심 원료로 ‘커큐민 펩타이드’를 선보인다. 강황에서 추출한 항산화 성분 커큐민에 펩타이드를 더해 피부 전달력을 높였다. 랩센 브랜드 첫 제품으로는 ‘펩타이드 카밍 세럼’을 내놓는다. 3종 펩타이드에 하이드록시데실유비퀴논, 아데노신 등을 배합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등을 돕는다.

앞서 미인실록과는 ‘펩타이드 헤어&비디’ 제품군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들

은 루마니아 현지의 알마파머시 매장에 입점하는 등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고 지난달에는 루마니아 초도 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HLB펩 측은 “27년간 축적한 국내 최고 수준의 펩타이드 기술력으로 스킨케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문성은 인디 뷰티들의 기업 전략에서도 성장 요소다. 지난달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전략 투자를 유치한 탈모·두피 케어 브랜드 리필드의 경우, 탈모 전문가가 특허 성분 ‘사이클릭 ADP-리보소(cADPR)’를 개발했다. 리필드는 이 성분이 모발 성장 관련 신호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까지 규명했다. 성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발모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받는다.

스킨케어 브랜드 세르본은 서울대 출신 연구진이 바르는 백신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세포 투과 펩타이드’를 처방해 화장품 유효성분을 세포 내부로 침투시키는 기술을 구현했다.

국내 뷰티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 특성 상 감각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나 디자인은 물론, 바이오 기술이식도 활발한 상황”이라며 “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쌓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에서 열린 인수 완료식에서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에이프릴 델라니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생산시설 첫 인수

# 글로벌 의약품 생산거점 확대

총 생산능력 84만5000L로 확대 안정적 공급·신규 수주 본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Rockville)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최종 완료하며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12월 계약 체결 발표 이후 약 3개월간 후속 절차를 거쳐 인수를 완료했다. 인수 주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이다.

록빌 생산시설은 총 6만L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공장으로, 두 개의 제조동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시설은 임상 단계부터 상업생산까지 다양한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총 생산능력을 기존 78만5000L에서

84만5000L로 확대했다. 특히 북미 지역 내 고객 대응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송도와 미국 록빌을 잇는 이원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고객에 안정적이고 유연한 생산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지 전문 인력 500여명을 전원 고용 승계해 운영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양 생산거점 간 통합 과정을 통해 기존 생산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신규 수주 확대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수요와 가동 상황을 고려해 록빌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 등 추가 투자도 검토할 방침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인수는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록빌 시설의 전문 인력과 함께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광동제약, 산림자원 활용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약 5년간 총 36억 연구비 투입

광동제약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산 산림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전주기 표준화 및 임가 연계 개별인정형 원료 글로벌 사업화’ 국책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기치사슬기술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광동제약은 단순 가공·원료 판매에 머물렀던 국산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령화 시대 헬스케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혁신

소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 내용은 ▲개별인정형 원료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AI 기반 품질 표준화 기술 구축 등이다. 광동제약은 다년간의 기능성 소재 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소재의 규격화와 공정 표준화를 완성하고 신뢰도 높은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에는 주관 기관인 광동제약을 비롯해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전문임업인협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5년간 총 36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광

동제약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체적용시험 및 개별인정 인허가, 해외 인증을 주도할 예정이다.

박일범 광동제약 천연물융합R&BD 본부장은 “공동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고도화된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산 산림자원의 우수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나이가 이 번 국책과제를 계기로 임업 농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검증된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셀트리온제약, 알레르기 치료 편의성 개선

오리클로 300mg PFS형 도입

셀트리온제약은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오리클로프리필드시린지주’ 사전중전형주사제(PFS)형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고용량 제형이 추가되면서 환자의 투약횟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의 처방 선택 폭은 한층 확대됐다.

셀트리온제약의 오리클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로, 이번 300mg PFS 도입을 통해 기존 75mg, 150mg에 이어 고용량 제품 라인업까지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에 맞춘 보다 유연한 용량 선택이 가능해졌다.



셀트리온제약 ‘오리클로 300mg’

특히 오리클로 300mg PFS는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300mg 투여 시 150mg제형을 2회 투여했으나, 300mg 제형 출시로 1회 투여가 가능해졌다. 주사 횟수가 줄면서 환자의 투약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진의 투약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세경 기자

## SK바이오팜, 美 FDA에 신약허가 신청

‘세노바메이트’ 경구 현탁액 제형

SK바이오팜이 뇌전증 핵심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사진)’의 경구 현탁액 제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NDA 신청은 기존 정제(Tablet) 제형에 이어 추가 제형 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성인 부분발작(POS)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액상 형태의 경구 현탁액 제형은 정제 제형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

고, 환자의 상태나 치료 환경에 따라 유연한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팜은 이를 기반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를 넓혀왔으며, 현재 세노바메이트의 소아대상 임상 개발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번 성인 대상 신약허가신청과 소아대상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투약 연령층을 소아·청소년 환자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개최된 2025 미국 뇌전증학회(AES) 연례학술대회에서는 세노바메이트의 기존 정제 제형 경구 현탁액 제형을



비교한약동학(PK) 연구 결과 포스터 세션을 통해 공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제형은 체내 흡수 및 약물 노출 양상이 전반적으로 유사해, 약동학적 특성의 동등성을 입증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세노바메이트 경구 현탁액 제형은 정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SK바이오팜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 관점에서 치료 선택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애프터 선 젤 로션’으로 피부진정 관리

동아제약 더마화장품 브랜드 ‘파티온’ 수분 공급·5대 선별 증상 복합 케어

동아제약의 더마화장품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자외선 노출 이후 선별(Sunburn) 피부를 케어하는 신제품 ‘애프터 선 젤 로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 파티온 애프터 선 젤 로션은 자외선 노출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5대 선별 증상(피부 열, 자극, 건조, 각질, 색소침

착)을 복합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이다. 젤 타입과 로션의 장점을 결합한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즉시 산뜻하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제공한다. 알로에의 한계를 보완해, 피부 온도 감소와 진정 효과는 물론 자외선으로 인한 수분 손실, 각질, 색소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단순 진정을 넘어 근본적인 선별케어가 가능하도록 동아제약 독자 성분인 ‘아퀼레리페어™’가 58% 함유되어 있다.

/이세경 기자